

2023년 9월 10일(주일) 제1647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 축제" 은혜롭게 준비 중

2023.09.22(금)-23(토)

9.22(금)-23(토)에 열리는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 축제"가 은혜롭게 준비 중입니다.

이번 바자 방법 중 새로이 시도되는 희망판 매장터, 사랑의 온도계 참여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 서울교회 바자는 작년과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바자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에 많이 참여하여 바자가 열리는 동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지인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웃의 등대되고 나침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자주간 새벽기도회 및 수요예배 장소 일시 변경

9월 18일(월)-23일(토) 본당에서

사랑의 바자가 열리는 주간인 9월 18일(월)-23일(토) 동안 바자위원회에서 1층 웨민홀을 사용하는 관계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본당에서 모입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하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희망 판매장터

1. 물품 기증

구분	내용	비고
기증물품 접수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	바자본부장 김광태 장로 또는 사무국에 통보 후 102호에 보관

2. 기증물품 판매

구분	내용	비고
기증물품 판매	기증된 물품 중 경쟁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전시 ▶ 구매 희망가를 최고가로 제시한 성도님께 판매	8층 식당 전시
물품 전달	오후 3시까지 구매 희망가 확인 후 구매자 확정 및 통보 ▶ 저녁 찬양예배 전,후로 물품 전달	당일 수령 원칙



* 사랑의 온도계

방법 1	2층 본당에 준비된 사랑의 온도계 모금함에 직접 참여
방법 2	사랑의 온도계 계좌로 참여 (카카오뱅크 7979-84-16979 오명걸)



지난 9월 3일 주일 1부 예배 전에 가졌던 '사랑의 온도계' 시작 행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평화로운 인생길의 은혜

(빌 4:4-7)



손달익 위임목사

세계적인 마케터 서지오 지면의 '리노베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개혁하기 전에 개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거창한 혁명적 방법만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설계와 디자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정과 섭리에 속한 일이지만 기도와 목상을 통해 자기 삶의 내용을 디자인하고 비전으로

품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또는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에 대한 자기 설계를 밝히면서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빌 1:20-21)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아직도 쫓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미완의 존재, 도상의 존재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의 디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빌 3:13-14)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버리거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순교적 결심을 하는 비장함 속에서도 그는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의 인생 설계를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1. 하나님께 맡긴 인생

누구에게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

이 있지만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보다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매우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고 실제로 이 서신을 쓰는 시간에도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강에 대하여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9절)고 했습니다. 평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고 그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해 평화를 얻기 원할 때가 많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평화조약들이 맺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약 100여 년 전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온 세상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문은 발전했고, 산업혁명의 여파로 물자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은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신이 없어도 성숙한 인간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인류의 미래는 낙관으로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두 차례의 세계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등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참화로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평화로우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함을 가르칩니다.

2. 기쁨과 관용의 삶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4-6절) 바울은 이 서신에서 특히 기쁨을 강조하여서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글인데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6번이나 나옵니다. 기쁘게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토록 기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오늘의 십자가에 총살하고 내일의 십자가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성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누구의 삶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히 살면, 일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관용을 인생 혁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공격과 억압과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추하고 안타까운 인간 역사의 배후에 우리 삶을 디자인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느끼면서 관용과 용서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용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회복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세이면
관용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평화를 얻는 통로는
기쁨과 관용하는 자세이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케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3. 기도하는 믿음을 더해야

기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세이면 관용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반

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평화를 얻는 통로는 기쁨과 관용하는 자세이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케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심이 아무리 견고해도 세상의 형편은 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흔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과 두려워할 일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헛소문 하나에도 우리 마음은 요동하고, 주변의 평가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는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능력을 허락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의 헛됨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 욕망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버리고 고쳐야 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마음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며 작은 행복에도 만족하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신앙의 힘을 얻읍시다. 그리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담한 믿음으로 허둥대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우 집사
(2023 바자위원회
섭외특판부장)

선선한 가을을 알린 9월 첫 주,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가 사랑의 온도계, 미리 바자, 희망 판매장터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 22일(금)-23일(토) 이틀간 서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고, 서울교회를 더욱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번 바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

존 목, 금 진행되었던 바자를 당회의 허락을 거쳐 금, 토로 변경하는 등 큰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홈쇼핑, 마트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으며, 백화점에 입점한 식기 브랜드 상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판매 및 체험을 통해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판부에서는 업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

자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바자 본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바자를 통해 이웃주민과 성도 간에 나누며 베푸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바자에 준비된 상품들입니다

9월 8일(금) 오후 3시까지 준비된 상품들 중 일부입니다. 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산호 브로치와 반지 세트



돈디 코리아의 포근한 침구류(3.5톤 차량 두 대 분량)



H백화점에 입점한 독일 천연세제 klar *



샤인머스켓



다양한 종류의 광천김



광천 새우젓(오젓, 육젓, 추젓)



시라쿠스 식기류

* KLAR는 독일의 친환경 세탁세제와 주방/욕실 청소용품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모토로 30년간 기업을 운영한 알마윈(Almawin)회사의 Klar 브랜드 제품으로 고품질 친환경적이며, 유럽의 3대 주요 인증서(EcoGarantie, Ecocert, DAAB)를 획득한 제품으로 특히, DAAB 인증은 독일 알레르기 및 천식 협회에서 인증한 것으로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이나 매우 자극적인 물질이 없는 제품에 수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민감 피부를 위한 좋은 제품입니다. 서울교회 바자를 위해 N 스마트스토어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서울교회 장학회(회장:김승록 장로)가 선발한 2023년 하반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Instagram) 서울교회 공식 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승준 안수집사
(유년부 부장)

현재 20-30대는 물론이며, 어린 유아, 유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Youtube, Instagram, TikTok, Facebook 등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ystem)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단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에는 방송 주요 장면들부터 사적인 개인

생활에서의 추억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들이 나날이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1분 혹은 1분 30초 내에 간결하게 포인트만 정리하여 전달하는 형식의 Short Form 형태의 콘텐츠(Shorts, Reels)들로 변화/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젠 이런 Short Form 혹은 개인 방송 채널의 콘텐츠들이 교회 전도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은 교회 방송팀을 중심으로 목회자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교인들 혹은 전도대상자들을 향한 다양한 메시지와 교회 전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및 배포까지 하며 지역과 성별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온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플랫폼들은 시청자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제안을 하다보니, 주로 찾아보거나 시청 시간 혹은 횟수가 잦았던 콘텐츠들과 유사한 콘텐츠를 계속 소개하고, 시청률 때문에 시청자들 중 말씀에 갈급함이 있거나, 교회를 서칭(searching)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반복 노출 혹은 전달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자기가 즐겨 찾아보던

영상과 콘텐츠의 교회로 별 거부감 없이 발 걸음을 향하게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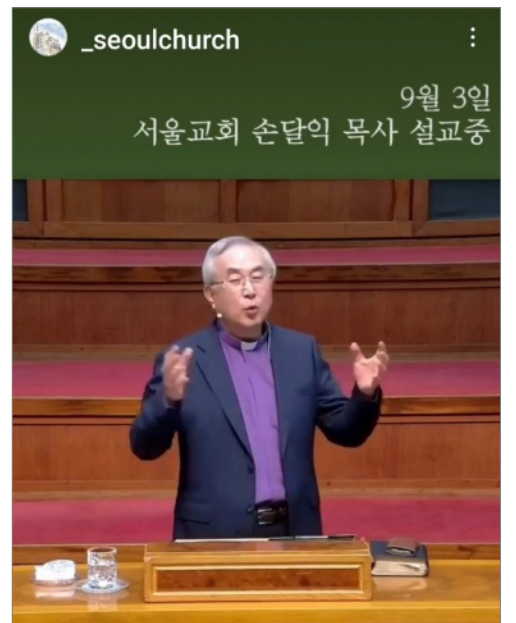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우리 서울교회도 교회에서 매주 생산되는 말씀부터, 다양한 교회 행사와 (교회학교, 특별행사 등) 진행 내용을 모두 교회를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기존 방식(순례자, 노방 전도, 축호전도 등)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한 주 한 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잘 정리하여 우리도 지역 주변부터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의 참 모습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부터, 다양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영상 제작 및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영상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에 관심이 있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순례자 혹은 유은경 집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홍보를 담당하는 이승준 안수집사, 유은경 집사, 김동현 집사

▷ 서울교회 인스타그램과 2,000뷰를 넘긴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설교 릴스 영상



반기독교 운동



춘원 이광수(왼쪽)와 그가 잡지 '청춘'에 기고한 "금일 조선야소교회의 결점" 중 일부



레닌(왼쪽)과 1917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니콜스카야 거리에서 '공산주의'란 현수막을 내걸고 행진하고 있는 병사들과 노동자들(가운데, 오른쪽)

종교개혁 400주년을 맞이했던 1917년에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춘원 이광수가 11월 잡지 「청춘」에 “금일 조선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교회가 계급적이고 교회지상주의에 빠져있으며, 교역자가 무식하고, 미신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역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의 지적은 교회 내에서도 공감을 얻었다. 감리회의 기관지였던 「신학세계」는 1916년 “금일 조선교회는 학식상 어느 정도에서 있는가”라는 글을 실으며 교역자의 신학적 수준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장로회의 「신학지남」도 1918년 “목사의 사상적 생활”이라는 글에서 목사가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진해야 하며, 세계 장로회 목사가 유식하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로회가 솔선수범하여 공부하지는 제안을 목회자들에게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1910년대 중반에 이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근대화 의 선두주자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이후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된 사회주의가 3.1운동 이후 한국에도 들어오며 근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이란 슬로건을 앞세운 사회주의는 당시 한국의 청년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민족을 이끌어가던 기독교에 강력한 대항세력이 생긴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제국

주의와 자본주의의 앞잡이라고 비판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했다.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던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이 한국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1923년 사회주의자들은 청년당대회를 열고 민족주의 진영을 비판하면서 유물론에 입각한 반종교 강령을 채택했고 1925년에는 반종교의 대상으로 기독교를 지목하였다. 같은 해 10월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조선주일학교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반기독교대회’와 ‘반기독교강연회’가 일제에 의해 금지되자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기독교가 일제와 밀착된 근거이며 기독교는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종교라고 악선전하였다. 조선주일학교대회가 일제와 마찰 없이 진행된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었다. 1926년 1월 사회주의자들은 그 해 크리스마스를 ‘반기독교데이’로 지정하고 공세를 높여갔다. 여러 지역에서 반기독교 운동의 행사들이 치러졌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와 기독교인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도 생겨났다. 이런 흐름은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 민족운동가들과 민족협동전선을 추구하게 되는 1926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를 1차 반기독교 운동이라 한다.

한국교회는 반기독교 운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1926년에서 27년 사이 장로회와 감리회에서만 38,000여 명이 교회를 떠났다. 비율로 따지면 1년에 17%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 교인이 급감하면서 한국교회는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였고 문을 닫는 교회까지 생겼다. 가장 뼈아픈 것은 청년층의 이탈이었다. 1928년 4월 4일자 「기독신보」에는 “열렬히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두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기독교 청년들의 사회주의 합류는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당연히 교회의 충격은 컸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회주의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청년 신앙교육이 부실했음을 의미했고 동시에 젊은층들이 교회에 실망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했다. 실제로 3.1운동 이후 한국교회는 일정 부분 사회문제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3.1운동으로 인한 수난의 경험이 워낙 컸던 데다, 선교사를 비롯한 일부 교회 지도층이 교회 유지와 전도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일제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아픈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 청년들은 교회에 희망을 잃고 떠난다. 그러나 반기독교 운동은 교회를 갱신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춤거리던 암울한 민족 역사 내에서의 소명을 재발견하고 가다듬는 갱신으로 이어졌다. 위기는 교회가 다시 순수성을 회복하고 고난 중이던 백성들과 사회를 향한 관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동기였다. 1920년대 후반 시작된 기독교 농촌운동이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작한 새로운 선교 방식이었다. 외부의 공격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우리를 파괴하기도, 우리를 복돋우기도 한다. 지금도 이어지는 우리 사회 안의 반기독교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 현상들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동정



- 조인트 리사이틀 : 6교구 유총기 장로
 '윤원주 류총기 조인트 리사이틀'
 2023. 9. 18(월) 오후 7:30
 IPAC아트홀

- 입대: 1교구 감정현 성도 9월 4일 카츄샤 입대 (감우균 집사·김연화 권사 둘째 아들)

식사 제공

- 1교구 김영선 안수집사·권택숙 권사 가정 (외손주 신지을 아기 백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1시-2시)	수요일	전도회 (1시-2시)	토요일	선교회 (1시-2시)
				9/2	빌립 안드레 베드로
9/3	자원자	9/6	도르가 루디아 뵈뵈	9/9	바울 엘리야
9/10	자원자 마리아	9/13	한나	9/16	모세
9/17	자원자	9/20	에스더	9/23	바자
9/24	자원자	9/27	리브가		추석 연휴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에스라·느헤미야	화, 오전 10:30-12:00	9.5-10.31(8주)	최종국 전도사	602호
신약의 파노라마	금, 오전 10:30-12:00	9.8-11.3(8주)	장석남 목사	603호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9.10-11.12(10주)	강남희 전도사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9.7-11.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호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자	요일	1년 2독	확인
9월11일	월	단 1-3		9월11일	월	느 8-13	
9월12일	화	단 4-6		9월12일	화	에 1-10	
9월13일	수	단 7-9		9월13일	수	욥 1-7	
9월14일	목	단 10-12		9월14일	목	욥 8-14	
9월15일	금	호 1-8		9월15일	금	욥 15-21	
9월16일	토	호 9-14		9월16일	토	욥 22-30	
9월17일	주일	욥 1-3		9월17일	주일	욥 31-35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웃과 함께 풍성히 나누며 사는 천국백성 되게 하소서.
- 성경대학과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2023 실천하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바자 축제"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통일국가로 나아가도록 이 한주간도 친히 운행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총기
-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